



忠北大同門會報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제53호

발행인 : 윤양택 편집인 : 어강석



회장 인사말



총동문회장 윤양택

존경하는 충북대학교
20여 만 동문 여러분!

코로나19 팬더믹의 길었던 터널을 지나 마치 신세계가 열린 듯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변했던 생활들이 하나, 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마음도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3대 총동문회장에 취임하며 새로운 도약으로 동문간의 유대 강화를 통해 동문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동문회

의 재정 확보를 통한 사업의 다양화로 동문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 드리고 참여를 늘리는 것이 총동문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임 이후 총동문회 발전기금 1,250만원을 조성하였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하였습니다. 기관·단체 동문회 임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위축되어 있던 동문단체들의 활동 재개를 격려했으며, '5월 12일 동문 상견례 및 임원 위촉 행사'를 시작으로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연', '제52호 동문회보 발간', '제19회 총동문 골프대회', '제28회 총동문 가족체육대회'를 잘 마쳤으며 '총동문주소록 발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계묘년에 들어서 3년 만에 2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신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내에서도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정의배 총장직무대리를 비롯한 보직교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총학생회 임원 간담회, 격려금 지급 및 단과대학 학생회 격려금 지급 등을 통해 학생들과의 소통도 강화했습

니다. 또한 지난 가을 모교 구성원 간 총장 선거에 대한 투표비율방식이 합의되지 않고 총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총동문회는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내고 구성원 대표들을 만나 합의를 촉구하여 결국 지난 12월 6일에 잠정합의에 이르렀으며 올해 1월 18일에 총장임용후보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총장이 임명된다면 충북대학교는 다시금 더 활기찬 캠퍼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2020년 21대 총선에서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였고 개교 71주년이었던 지난 해 6.1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4명, 광역의원 13명, 기초의원 27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개교 이래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많은 동문들이 당선된 것은 처음입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이제 우리 동문들이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더욱이 30~40대 젊은 동문들이 다수 당선되어 미래 또한 밝

다고 생각합니다. 총동문회는 언제 어디서나 동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응원하고 도울 것입니다.

지금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서울지역 대학과의 격차 심화, 졸업생들의 취업난 등 대학을 넘어 지역사회까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직원, 학생은 물론 동문들까지 힘을 합쳐 어려움을 헤쳐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동문들이 단합된 마음과 힘으로 모교와 후배들을 지원해 주어야만 더욱 강인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학생들이 미래의 동문으로 지금의 동문들이 굳건한 초석(礎石)을 다져야만 미래의 동문들이 더욱 큰 상석(上石)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교 72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도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로 더욱 빛나는 총동문회를 만들어 주시고 모교의 발전과 함께해 주시길 기대하며 동문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2023 충북대학교 총동문 신년회

일시 : 2023년 1월 12일 (목) 18시30분

장소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다목적홀



와 더불어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서 윤양택 총동문회장의 신년사, 박종진 학생처장, 도종환 국회의원, 이장섭 국회의원, 황영호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범석 청주시장, 이재영 증평군수 등의 축사와 만찬으로 이어졌다.

충북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윤양택)는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 30분부터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다목적홀에서 2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3년 만에 '2023 충북대학교 총동문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충북남성중창단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된 신년회는 상호간 새해 인사



충북대학교 제22대 총장 선거



2023년 1월 18일에 충북대학교 제 22대 총장 1순위 후보에 고창섭 전기공학부 교수(59)가 선출됐다. 작년 8월 제21대 김수갑 총장이 사퇴한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오던 우리 대학이 새로운 총장을 맞게 되었다.

그동안 총장 선출을 위한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공방을 벌여온 충북대학교 구성원들이 작년 12월 7일 교수 69%, 직원 23%, 학생 8%로 합의하여 선거가 진행될 수 있었다. 이번 선거에는 임달호, 이재은, 고창섭, 김수갑, 홍진태 교수 등 5명이 도전장을 냈다. 1월 2~3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4일부터 17일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1월 13일 합동 연설회와 1월 13일과 16일에 두 차례 공개토론회를 거쳐 1월 18일에 온라인 투표로 선거를 진행하였다. 선거 결과 총장 1순위 후보에 고창섭 전기공학부 교수(59)가, 2순위 후보로는 홍진태 약학과 교수(61)가 뽑혔다. 고창섭 교수와 홍진태 교수는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투표(투표율 85.50%)에서 각각 38.46%와 27.71%의 득표율로 결선 투표

에 올랐다. 김수갑 후보는 17.79%, 임달호 후보는 10.30%, 이재은 후보는 5.51%의 지지율에 그쳐 컷 오프됐다. 이어 이날 오후에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고창섭 교수가 55.15%를 얻어, 44.84%를 얻는 데 그친 홍진태 교수를 따돌리고 1순위 후보에 선출됐다.

고창섭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더 나은 미래가 시작되는 대학 고창섭과 함께'를 앞세워 △Gap-Zero 자기주도 취업 프로그램 △AI 튜터링시스템 도입 △거점국립대 최상위권 장학금 △7년 마다 연구년 교수 기회 보장 △교수당 1~2인 대학원생 전액 장학금 △교직원·가족 전용 프리미엄 건강검진 △교수회와 직원회 대학 운영의 동반자 관계 격상 △4년간 2조 9090억원 예산 확보 △1500억원 규모 CBNU 혁신파크 조성 등을 약속했다.

충북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고창섭 교수를 1순위 총장 후보로, 홍진태 교수를 2순위 총장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가 총장 후보자 검증을 거쳐 대통령실에 총장 후보 1명을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통상 국립대 총장을 임용하는 데는 1, 2 순위 후보자가 논문·병역·범죄 경력 등의 서류를 준비하는 데 대략 2주일 정도 걸리고, 이후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하는데 1~2주일, 교육부 검증 기간 1개월, 대통령실 마지막 검증 기간 1개월이 걸린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충북대 새로운 총장이 취임하기까지는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 없는 총학생회장 선거

2023학년도 총학생회 및 자치기구, 각 단과대 학생회 선거가 2022년 11월 23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우리 학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제55대 총학생회 선거는 총 유권자 1만 2,233명 중 4,975명이 투표해 40.6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인 50.73%보다 10.06% 낮아진 결과다.

이번 선거에서 기호 1번 'POST'선본이 단독 입후보하였는데, 선거 시행세칙 제6장 제19조에 '단독후보일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투표에 과반수의 찬성 득표를 당선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투표율을 충족하지 못해 낙선했다. 또한, 총대의원회에 출마한 기호 1번 '이음'선본도 과반을 넘지 못한 투표율 42.92%(5,251명)로 낙선했다.

한편, 단과대 학생회 선거에서는 사회과학대, 공과대, 사범대, 수의대는 입후보자가 없었으며, 약학대만 후보 두 팀이 출마해 경선으로 진행했다. 나머지 단과대학은 단독후보로 각 단과대학별 투표율은 ▲인문대 54.15%(529표), ▲자연과학대 55.61%(654표), ▲경영대 46.02%(556표), ▲전자정보대 51.95%(922표), ▲농업생명환경대 56.13%(824표), ▲생활과학대 55.49%(288표), ▲의과대 53.98%(305표), ▲융합학과군 54.93%(78명)를 기록했다. 이에 단과대 중 유일하게 경영대 학생회가 46.02%로 투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해 낙선했다.

이번 총선거에서 낙선된 총학생회와 총대의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이며 내년 3월 재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2 개신대동제 'Abelio' 개최

충북대학교가 개교 71주년을 맞아 학생과 교직원, 동문뿐 아니라 지역과 함께 즐기는 2022 개신대동제 'Abelio'를 2022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진행되는 대면 축제행사로 나:Be 총학생회와 다운총동아리연합회가 주관했다.

이번 축제의 이름인 'Abelio'는 충북대 교목인 미선나무의 영문명으로, 꽃말은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를 나타낸다. 개신대동제를 통해 충북대 구성원과 지역 주민이 지쳐 있던 마음을 달래고 잠시 쉬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개신대동제의 명칭을 충북대학교 상징과 연관 지음으로써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학교와 상징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였다.

이번 개신대동제 'Abelio'는 ▲보이는 라디오 ▲중소사(충북대생들의 소름 돋는 라이브) ▲And or End : CRIME(방탈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어트랙션존 ▲화우정원 ▲부스존 ▲푸

드트럭 ▲먹거리존 등이 상시 운영되었다. 그리고 각종 온·오프라인 이벤트가 진행되어 축제의 분위기를 더하였다.

축제 2일차인 9월 29일에는 개신대동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중앙동아리 공연 ▲연예인 축하무대(비비, 아이브) ▲EDM 파티가 이어지고, 축제 3일차인 9월 30일에는 중앙동아리 공연을 시작으로 연예인 축하무대(보라미유, 릴보이, 타이거 JK&윤미래&비지)도 이어졌다.

정의배 충북대 총장 직무대리는 "이번 개신대동제를 통해 그동안 코로나19 및 학업·업무 등으로 지친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충북대는 국가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자체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지역 소명과 지방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축제가 학생·교직원·동문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모두가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학년도 단과대학 연합축제(HOLIDAY) 개최

우리 대학의 13개 단과대학에서는 9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충북대 일원에서 전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2022학년도 단과대학 연합축제(HOLIDAY)'를 개최했다. 단과대학 개별로 운영했던 기존 행사를 보완한 이번 축제는 타 단과대학 학생과 구성원들이 화합하고 교류하기 위해 13개의 단과대학 학생회가 올해 처음으로 주최해 진행했다.

이날 충북대 중앙도서관 일대에서 재학생의 푸드트럭 부스와 입학 홍보대사 및 외부 업체 부스 등 다양한 먹거리 및 볼거리를 마련해 방문객들을 환영했다. 단과대학 연합축

제 부스는 축제 마지막 날인 9월 20일 오후 5시까지 운영하였다. 또한 충북대 인문대학 지하에서 귀신의 집을 운영해 축제의 품성함을 더했다.

축제의 본무대인 저녁 일정은 ▲9월 19일 개막식과 동아리 공연, 가요제(우왕~! 총대가요제!), 미니게임 등이 진행되었으며, 초청 연예인 윤하, 싸이버거, 경서의 공연이 있었다. ▲9월 20일 각 단과대학 해오름제 우승팀 무대(Traveler)와 동아리 공연, 미니게임, 초청 연예인은 다비치, 랩퍼 한요한, Honeybees, DJ RARA 등의 무대가 있었다.



충북대학교 개교 71주년 기념식 개최



충북대학교가 개교 71주년을 맞아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대학본부 3층 대강의실에서 '개교 7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의배 충북대 총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대학 간부진들과 교직원 및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기념식은 정의배 충북대 총장 직무대리의 축사에 이어 ▲장기근 속 교직원 표창(94명) ▲CBNU Galaxia(7명) ▲이달의 연구자(7명)

등 충북대의 오늘날을 위해 힘쓴 교직원에게 시상 및 격려했으며, 충북대의 정령 성장을 위한 정령 실천 서약도 진행했다. 정의배 총장 직무대리는 “우리 대학이 코로나19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직원과 구성원들이 보여준 끊임없는 희생과 봉사,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의 충북대학교 100년을 위해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일과에 열중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독도지킴이 행사 진행

충북대학교는 2022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 및 독도에서 '독도 지킴이 행사'를 개최했다. 독도 지킴이 행사는 2011년 개교 60주년을 맞아 시작된 행사로, 독도 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 및 애국심과 학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독도지킴이는 학생 31명 교직원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은 중앙학생자치기구 임원 및 학교의 명예를 빛낸 공로 학생, 일반 모범 학생으로 선발하였다.

11월 16일 새벽 5시, 총 41명의 독도지킴이가 학교 본부 앞에 모였다. 간단한 발대식을 한 후 버스에 탑승해 경상북도 포항시로 출발했다. 포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동안 파도가 심하여 멀미를 하는 단원들이 많았다. 포항에서 출발한 지 4시간 만인 1시쯤 울릉도에 도착

하였다. 독도지킴이단은 울릉도에 머무는 3일 동안 독도박물관, 독도전망대, 봉래폭포, 내수전망대, 나리분지, 삼선암 등을 탐방했으며, 둘째 날에는 독도에 입도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높은 파도로 인해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날씨도 좋고 파도도 잔잔하여 무사히 입도에 성공하는 기쁨을 누렸다.

독도지킴이 단장을 맡은 박종진(체육교육과 교수) 학생처장은 “학생들이 인솔자의 말을 잘 따라 주어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독도에 입도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오래 간직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열공야식



충북대학교는 지난 2013년부터 학교에 남아 늦은 밤까지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열공야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에도 12월 6일 저녁 5시 30분에 개신문화광장에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열공야식'을 제공했다. 이날 정의배 총장 직무대리, 박종진 학생처장, 나경희 도서관장, 장충덕 학생부처장 등 대학 간부진과 문지훈 제54대 나:Be 총

학생회장 등 20여 명은 미리 준비한 브리또와 탄산음료(각각 1,000개)를 직접 나눠주며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정의배 총장 직무대리는 “기말고사를 위해 추운 날씨와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격려를 해주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남은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학업의 성취를 이루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우리 대학, 전국체전에서 '금2·은3·동3' 획득



2022년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학교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전국체전에 충청북도 선수단 대학부 소속으로 출전한 우리 학교 체육교육과 학생들은 ▲소프트테니스 ▲레슬링 ▲검도 ▲육상 ▲테니스 등 5개의 종목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해 총 8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소프트테니스 단체전에서 ▲진희운(체육교육 19) ▲김재훈(체육교육 19) ▲조성훈(체육교육 20) ▲설윤수(체육교육 21) ▲정정일(체육교육 21) ▲김상익(체육교육 22) ▲문정인(체육교육 22) 학생이 7연패를 달성했고, 개인복식에서는 김재훈, 설윤수 학생이 은메달을, 개인단식에서는 진희운(체육교육 19) 학생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레슬링에서는 반민욱(체육교육 20) 학생이 자유형 65kg급과 그레코로만형 67kg급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박성민(체육교육 22) 학생이 그레코로만형 77kg급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검도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해 ▲김

은식(체육교육 19) ▲임상민(체육교육 19) ▲김용화(체육교육 20) ▲나영진(체육교육 21) ▲김상혁(체육교육 22) ▲윤두현(체육교육 22) 학생이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육상에서는 김리경(체육교육 19) 학생이 여자 8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육상 부문 동메달을 딴 김리경 학생은 “우리 학교 육상부 선수 중 나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단거리 선수이다. 비교할 대상이 없고 오로지 나 자신만 보고 준비해야 했기에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회 2주 전부터 정신적으로 힘들고 마음도 잡히지 않았다”라며 “메달을 기대하지 않고 출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기록이 나와 놀랐다. 동메달을 딴 것이 실감 나지 않고, 꿈만 같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후배들에게 “모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시합에 나가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란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장충덕 편집위원>

제28회 충북대학교 총동문 가족 체육대회



충북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윤양택)는 지난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충북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3년 만에 제28회 충북대학교 총동문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미래로 세계로 도약하는 충북대 동문! 파이팅!'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대회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14개 기관·단체 동문회에 80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윤양택 총동문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정의배 충북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정우택 국회의원, 이장섭 국회의원, 이재영 증평군수 등의 축사로 이어진 개회식 이후 배구, 축구 페

널티킥, 골프 퍼팅, 농구 슈트, 개인기 네스게임, 단체 명랑운동게임, 장애물 릴레이경주 등으로 나누어 열띤 경기를 펼쳤다.

이날 대회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팀이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토목학회팀이 2위, 충북대상공인회팀이 3위를 차지했다.

윤양택 총동문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3년 만에 열리는 체육대회를 기점으로 각 기관·단체 동문회가 우선적으로 활성화 되고 동문 간 활발한 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한 자리가 되며, 궁극적으로 총동문회와 모교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충북대학교 총장 선거 지연에 따른 성명서 발표



총동문회 윤양택 회장과 집행부는 22년 10월 4일 오전 11시 충청북도 교육청 기자실에서 모교 총장선거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총장 공백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1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북대 총동문회는 '총장선거 지연에 따른 총장 공백 사태를 20만 동문이 우려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지난 8월 1일 김수갑 총장 사직으로 2개월째 총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는 모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지방대학의 위기에 총장이 앞장서서 불철주야 뛰어도 모자랄 판에 대학 구성원 간 합의 지연으로 대학이 더욱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하여 20만 동문과 지역사회가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총동문회는 11월 29

일 오전 11시 총동문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총장선거 지연에 따른 상황을 공유하며 동문들의 뜻을 모아 2차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수·직원·학생 대표단에게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총동문회는 '총장선거 합의지연에 따른 총동문회 최후통첩'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교수·직원·학생의 대표단은 집단이 기주의에 빠져 투표반영 비율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총장 공백 사태가 더욱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히 우려하는 20만 동문은 모교의 정상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라고 하면서 "12월 5일까지 투표반영비율을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총동문회는 "12월 5일까지 투표반영비율이 합의되지 않으면 교수 대표단과 직원 대표단은 대학을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지고 대학을 떠나도록 운동을 전개 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12월 6일에 가까스로 교수·직원·학생 간 잠정합의가 이루어졌다.

제19회 충북대학교 총동문 골프대회

제19회 총동문 골프대회가 22년 9월 2일 보은군 탄부면 소재 클럽디솔리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160명의 동문들이 참여하여 친목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양일(67타), 여자부 김숙일(73타) 동문이 메달리스트를 차지했다.

이날 참석자 중 최고령인 강신우(농학 61), 신영철(농학 63) 동문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됐다.

윤양택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동문회를 활성화하고 동문 간 상호협력해 궁극적으로 총동문회와 모교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직교수 초청 간담회



총동문회 윤양택 회장은 22년 10월 7일 18시에 분평동 한 식당에서 정의배 총장직무대리 및 보직교수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총동문회와 학교 간 유대를 강화하고 학교 발전에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총동문회 윤양택

회장의 초청으로 마련한 자리로써 학교 측에서는 정의배 총장직무대리, 박종진 학생처장, 이문순 기획처장, 정상문 연구처장, 이영성 산학협력단장이 참석했으며 총동문회를 대표하여 윤양택 회장, 이인호 부회장, 곽종국 상임이사, 황동민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충북대학교 재직동문회 2022년 정기총회 개최



충북대학교 재직동문회는 2022년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 흥덕구 봉명동에 위치한 청마루에서 2022년 충북대학교 재직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2019년 12월 개최된 이래 3년 만에 대면으로 이루어진 정기총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회의는 배득렬(중문 81) 회장의 개회사와 해외 출장 중인 정의배 총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박종진 학생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서 배회장이 2023년 2월 28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6명의 퇴임예정자를 대표하여 참석한 성연희(약학 76) 수의대 수의학과 교수에게 송공패를 전달하였다. 이후 지난 3년간의 회계 보고가 있었으며, 2023년도 회계 심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번 정기총회의 가장 중요한 순서인 2023년도 충북대학교 재직동문회 회장 선임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배득렬(중문 81)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충북대학

재직동문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말하면서 "처음 2020년 재직동문회를 맡아 임기를 시작할 때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었는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제 새로운 회장단에 의해 하나씩 하나씩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해 나간다면 다시 활발한 재직동문회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2023년 충북대학교 재직동문회 회장으로 박종진(체육교육 83) 동문이 선출되었다. 박종진 신임 회장은 "2023년 일 년 동안 열심히 계획하여 회원들의 단합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6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였으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했던 회원들 간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 꽃을 피우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윤양택 충북대학교 총동문회장은 금일봉을 보내 격려하였다.

영어영문학과 Homecoming Day 성황리 개최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Homecoming Day가 2022년 12월 10일 오후 6시에 S컨벤션센터에서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김일기(영문 84)동문회장의 인사말과 재학생 학생회 임원들에게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고, 동문회 활동 보고

및 동문들의 다양한 축하공연이 이어진 가운데 추억의 사진첩 영상을 보며 옛 추억을 동시에 감상 하였으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화기에 애한 축제의 분위기로 영문과의 결속을 다시 한번 다짐하였다.

2023년도 충북대학교 재직동문회 회장 박종진 (체육교육 83)

지난 2022년 12월 12일 충북대학교 재직동문회는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신임 회장으로 박종진 동문을 선출하였다. 박종진 신임 회장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83학번으로 1999년 충북대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현재 충북대학교 학생처장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충북대학교 재직동문회는 충북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모교 출신의 교수와 교직원 200여 명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모임이다. 그러나 2020년 초부터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충북대학교 재직동문회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으며, 그동안 꾸준히 이어지던 다양한 행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박종진 신임 재직동문회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활동이 중단되었던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지만, 일단 지금의 단계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의 재직동문회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3년간 활성화되지 못했던 모임이나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시작해서 충북대학교 재직동문회가 구성원들의 친목과 단합은 물론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고 다짐하였다. 또한 "무엇보다 충북대학교 동문으로서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재직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2023년 일년을 봉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대학교 재직동문회는 그동안 강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언제나 모교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후배들의 원활한 학업을 위하여 매년 학생들을 선발하여 재직동문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에 매년 1천만 원의 회비를 기부하여 연구자들과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서적과 디지털 자료를 확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도 하고 있다.



재경동문회 2023년 신년회 개최



재경동문회(회장 이재로)는 지난 1월 30일 19시 서울 서초동 토담한정식에서 2023년 신년회를 개최하

였다. 이날 신년회에는 윤재호(농화학 62) 동문을 비롯한 3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동문 간의 우애를 다졌다. 이재로 회장은 "계묘년을 맞이하여 동문 선후배 간의 유대를 통해 서울 지역의 동문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총동문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제44회 토목공학부 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토목공학부 동문회(회장 류근형 토목 86)는 2022년 12월 3일 18시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다목적홀에서 제44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약 150여 명의 토목공학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사학위 취득 동문과 기술사 취득 동문에게 공로패 및 자랑스런 동문패 증정과 동문사랑 장학금을 재학생 5명에게 전달하였으며, 신임 토목공학부 동문회장에 홍기남(토목 89) 동문이 선출되었다.



제33대 임원명단

회장 윤양택 컴공 82 감사 김용은 과학교육 72 정삼균 경제 95 사무처장 황동민 안전 87

자문위원

- | | | | | |
|------------|------------|------------|----------|------------|
| 곽정수 농공63 | 김현준 체육교육63 | 송범현 농학73 | 임창재 농학64 | 최한기 체육교육72 |
| 김광렬 화공71 | 류태기 체육교육61 | 연광석 농공64 | 정동주 농학63 | 한종구 국어교육72 |
| 김내수 축산68 | 박동준 영어교육73 | 유무웅 체육교육61 | 정상길 농학64 | |
| 김병동 체육교육64 | 박인성 행정대학원 | 이중근 체육교육70 | 정상혁 입학60 | |
| 김윤배 약학73 | 변상권 영어교육70 | 이훈 축산63 | 정찬문 연초72 | |
| 김태훈 화공70 | 석영선 연초68 | 임상화 약학70 | 조성찬 농공69 | |

부회장

- | | | | | |
|-------------|--------------|-------------|-----------|-------------|
| 강병권 법학전문대학원 | 도종환 국어교육73 | 신호섭 행정88 | 이용근 기계86 | 정봉수 법학전문대학원 |
| 고근석 법학84 | 류근형 토목86 | 심우경 경제87 | 이인호 컴공82 | 정희섭 경영대학원 |
| 권민안 체육교육85 | 박경국 농경77 | 양승덕 의학85 | 이장섭 국문82 | 홍희식 건축87 |
| 권용봉 건축82 | 박기수 농학93 | 엄정식 무역86 | 이재신 법학86 | 조기식 무역79 |
| 김동식 건축84 | 박덕규 건축86 | 엄태영 화공77 | 이전명 약학96 | 조남훈 산업대학원 |
| 김동완 중문81 | 박완배 법학81 | 연경환 경제81 | 이종영 경영83 | 조성록 입학82 |
| 김두호 농생물79 | 박완희 정보92 | 오유식 컴공86 | 이진희 건축80 | 조성훈 사법90 |
| 김사석 체육교육81 | 박종서 토목80 | 유상용 약학86 | 이차영 행정79 | 최병윤 건축80 |
| 김수갑 법학80 | 박종진 체육교육83 | 유용철 회계91 | 이한목 경제80 | 최태호 입학79 |
| 김종복 산업대학원 | 박진희 국문91 | 윤종락 법학전문대학원 | 이현우 토목86 | 최현호 법학81 |
| 김진균 체육교육81 | 배득렬 중문81 | 윤종민 법학81 | 이현웅 도시88 | 한만혁 수학교육82 |
| 김제홍 전기84 | 배바로니 법학전문대학원 | 윤현우 산업대학원 | 임병운 농공14 | 홍성민 의학90 |
| 김진상 토목79 | 변은영 정의88 | 이광형 축산82 | 임회중 건축85 | 홍종영 법학91 |
| 김철문 법법학85 | 송태영 행정79 | 이면재 약학80 | 장동석 제약96 | 황영호 행정80 |
| 김형근 경영78 | 신강일 불문86 | 이영노 컴공86 | 장선배 경제81 | |
| 노동영 법학97 | 신동엽 무역82 | 이원배 산업대학원 | 장수정 산업대학원 | |
| 노재희 컴공85 | 신태수 약학84 | | 장윤식 식품82 | |

상임이사

- | | | | | |
|------------|------------|-------------|------------|-----------|
| 곽종국 농기계84 | 김요식 화공78 | 박철용 농학83 | 양영순 불문83 | 이준범 사법93 |
| 구민형 경영대학원 | 김은영 가정교육86 | 박한규 사학84 | 오세욱 토목86 | 이호진 토목93 |
| 권명중 축산08 | 김응운 경영96 | 변기철 경영대학원 | 우선희 농학80 | 임달호 경영84 |
| 권순동 경영87 | 김정희 미술교육78 | 서상택 농경85 | 유희재 토목81 | 장석천 법학90 |
| 김경민 경영대학원 | 김찬중 경영82 | 서정욱 입학90 | 윤병인 대학원 | 최성호 축산91 |
| 김기동 생물82 | 김철구 경영96 | 서지민 고고미술사95 | 이강우 경영대학원 | 최영준 사학90 |
| 김길하 농생물79 | 김태석 정의87 | 신광균 전기94 | 이광희 농생물82 | 최울 토목03 |
| 김두환 체육98 | 김환진 경영대학원 | 신의섭 철학82 | 이기수 미술교육81 | 허태영 통계91 |
| 김상학 천문우주91 | 김현주 대학원 | 신현구 경제82 | 이범홍 무역87 | 허현주 경영대학원 |
| 김선각 대학원 | 맹승진 농공86 | 신홍섭 경영84 | 이봉직 토목82 | 홍기남 토목89 |
| 김선희 천문우주92 | 박결순 역사교육77 | 신창범 무역95 | 이우범 국문82 | 홍진태 약학80 |
| 김성만 입학85 | 박수진 경영대학원 | 신화수 경영89 | 이은봉 농학82 | 황운서 경제82 |
| 김영관 사학85 | 박영석 의학93 | 안광국 토목85 | 이성우 건축86 | 황창호 경제92 |
| 김영주 전기91 | 박종국 의학85 | 안효풍 경제81 | 이종규 토목89 | |

• 회장 : 윤양택 2,000만원 임원회비 · 동문회비 · 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2023년 2월 28일 기준)

• 부회장 : 50만원

- | | | | | | | |
|-----|-----|-----|-----|-----|-----|-----|
| 고근석 | 권용봉 | 김동식 | 김동완 | 김사석 | 김종복 | 김진균 |
| 김제홍 | 김진상 | 김철문 | 노동영 | 도종환 | 류근형 | 박경국 |
| 박기수 | 박완배 | 박완희 | 박종서 | 박종진 | 박진희 | 배득렬 |
| 변은영 | 신강일 | 신동엽 | 심우용 | 양승덕 | 엄정식 | 엄태영 |
| 오유식 | 유용철 | 윤종민 | 윤현우 | 이범석 | 이영노 | 이용근 |
| 이인호 | 이장섭 | 이재신 | 이전명 | 이종영 | 이진희 | 이차영 |
| 이현우 | 임병운 | 장동석 | 장수정 | 장윤식 | 정희섭 | 조기식 |
| 조남훈 | 조성록 | 조성훈 | 최병윤 | 최태호 | 최현호 | 한만혁 |
| 홍성민 | 홍종갑 | | | | | |

• 상임이사 : 20만원

- | | | | | | | |
|-----|-----|-----|-----|-----|-----|-----|
| 곽종국 | 구민형 | 김기동 | 김길하 | 김두환 | 김상학 | 김선각 |
| 김선희 | 김성만 | 김영관 | 김요식 | 김은영 | 김응운 | 김정희 |
| 김철구 | 김태석 | 맹승진 | 박영석 | 박종국 | 박한규 | 변기철 |
| 서정욱 | 서지민 | 신광균 | 신의섭 | 신창범 | 신현구 | 신홍섭 |
| 신화수 | 안광국 | 안효풍 | 양영순 | 오세욱 | 이강우 | 이광희 |
| 이기수 | 이성우 | 이범홍 | 이호진 | 임달호 | 장석천 | 최성호 |
| 최영준 | 최 울 | 허태영 | 허현주 | 홍기남 | 황운서 | 황창호 |

• 총동문회 발전기금 : 충북대상공인회 750만원
김준기(통계 91) 250만원 허태영(통계 91) 250만원

• 평생회비 : 권용봉(건축 82) 50만원 한혜숙(의학 95) 50만원 박종국(의학 85) 30만원 김선희(천문우주 92) 30만원 김혜숙(회계 84) 30만원

동문인사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 유운기 (행정 79) 이사장 취임

청주시 체육회

- 김진균 (체육교육 81) 회장 취임

경찰청

- 김철문 (법학 85) 경무관 승진

청주시청

- 신병대 (행정 86) 부시장 부임

NH농협

- 김정태 (원예 85)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부분부장
- 엄정식 (무역 86) 제천시 지부장
- 고윤종 (무역 89) 음성군 지부장
- 오희관 (행정 89) 청주시 지부장
- 이문규 (행정 89) 혁신도시 지점장
- 현석환 (경영 89) 동청주 지점장

동문회비 납부안내

동문회비! 모교 사랑의 열매이며 동문회를 키우는 뿌리입니다. 은행에 가실 때 잊지 말고 동문회비(연회비, 평생회비, 임원회비, 장학기금)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시 성명 · 학과 · 입학년도 입력 요망!!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이상

농협 301-0229-7165-71 (예금주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문의 043-261-3121

충북도의회 의장 **황영호** (행정 80)



업을 접은 것이다. 황 의장은 “그때는 그 정도로 지방의원에 진심이였다”라고 회고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충북도의회 의장으로 다시금 정치인의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 지난 4년여 간 정치인으로 풍천노숙을 하던 시절도 보내면서 더욱 원숙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황 의장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과 어울려 다니면서 친구를 챙기고, 의리를 지켰던 게 정치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면서 “이제는 주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 의장은 조선 출신 의장답게 패기와 용기로 충북도의회를 이끌고 있다. 황 의장은 그동안 세 차례의 연찬회를 열어 의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 예산안 심사 기법, 조례안 제정 등을 공부했고 두 차례의 정례회 2회, 세 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집행기관의 정책이 오롯이 도민만을 향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의회의 위상제고에 힘쓰고 있다.

황 의장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기능을 강화해 왔고, 이것이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황 의장은 앞으로 사무처 직원 인사에 있어 연공서열, 근무성적 평정, 업무능력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보편타당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회 청사가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벗는 데도 황 의장이 앞장서고 있다. 충북도청 옆에 지어지고 있는 도의회 청사는 충북 민주주의 시발점인 첫 의사당이 있던 자리이고, 그 자리에 70년 만에 다시 도의회 청사가 건립되고 있다.

이 밖에 황 의장은 오는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에도 힘쓰기로 했다. 황 의장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의회를 역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면서 “계묘년 새해에도 12대 도의회는 “도민은 항상 옳다”는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며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학 때 결혼, 성공한 기업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
친구들 밥 먹이던 학생신랑, 원숙한 정치인으로 성장해
“친구들 챙기듯이 국민위해 살겠다”

황영호 총동문회 부회장(충북도의회 의장)은 충북대 행정학과 3학년 때 결혼을 한 이색동문이다. 황 의장은 청주 출신으로 청주 덕성초와 청주남중, 세광고를 졸업하고 행정학과(80)에 입학했다. 행정학과는 이범석 청주시장(85) 등을 배출한 지역의 명문 학과다.

그 당시 대학생들처럼 황 의장도 제대로된 공부를 하지 못했다. 12.12에 이른 5.18, 군부정권 등장으로 휴교령이 실재없이 내려지던 암울한 시기여서 황 의장에게는 평화로운 캠퍼스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 황 의장은 군대에 입대하려고 했으나 어릴 때 다쳤던 발가락 때문에 귀향조치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입대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는 군에서 제대한 뒤 3학년 때 아내를 만나 '재학결혼'을 하게 됐다.

현재 청주향교 인근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으나, 대학동기들의 하숙집과 술집 역할을 할 정도로 친구가 많이 찾아들었다고 한다. 황 의장은 “그 친구들 중 한 명은 지금 청주에서도 유명한 한 사람”이라면서 “그때 친구들이 먹은 쌀만 해도 한 달에 한 짝이 넘었을 것”이라고 술회했다.

이처럼 친구 좋아하던 황 의장은 대학 졸업 후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취업했다. 청주에서 2년간이나 서울시 화곡동의 영업구역에서 의사를 만나는 의약 세일즈를 했고, 부지런한 그의 성품 덕에 청주지사로 전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6개월 어음조차도 결제하지 않는 한 의사와 크게 싸운 후 사표를 내고, 처음으로 백수의 길을 걷게 됐다. 등산과 낚시로 소일하던 그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있었으니, 그런 절박한 환경이 그를 페인트사업을 하는 아는 형님에게 이끌었다.

황 의장은 그 형님에게서 페인트 도색 작업 등을 배운 후 6개월 만에 독립을 선언했다. “초짜였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하루에 18시간 이상 페인트 밤 새 속에서 어질어질할 때까지 일한 적도 있었다”면서 “그 덕에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다”라고 황 의장은 말했다.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또 한 번의 변신이 다가왔다. 2006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그것이었다. 황 의장은 그의 스타일을 알아본 주변의 권유로 청주시의원에 도전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당당하게 당선한 그가 내리 3연속으로 시의원에 당선했고, 청주시의회 의장까지 하는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됐다. 다만, 그때도 그의 '결백증'이 훗날의 어려움을 더 가중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시의원이 되자마자 겸직이 허용됐는데도 잘되던 페인트사업을 과감히 정리했던 것이다. 일부 사업가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지방의원을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의원직을 수행하는 데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아예 생



- [약력]
- 청주 덕성초, 청주남중, 세광고, 충북대 행정학과 졸업
 - 3선 청주시의원
 - 청주시의회 의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 자유한국당 청주청원 당협위원장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 세광고 총동문회 부회장
 - 현 충북대 총동문회 부회장
 - 현 충북도의회 의장

〈안태희 편집위원〉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충북지역의 리더로 자리매김한 자랑스러운 동문인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7인을 만나 그 동안의 업적과 새해의 목표·포부를 들어 보고 동문들과 교감하고자 합니다. [김두환 편집위원]

국회의원 **도종환** (국어교육 73)



2022년 주요업적 3가지

1. **충북대학교 발전 필수예산 확보**
충북대학교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 55억, 충북대학교 종합운동장 환경 개선 35억, 충북대학교병원 노후 전

기설비 개선공사 8억 등 국비를 확보

2. **충북 발전 핵심사업 추진 지원**
충북과 대전-세종-충남을 연결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계속 힘써왔고,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성공, 충청권 광역철도·충북선 고속화 사업·충북 AI BIO 영재고 신설 등 충청권을 '신수도권'으로 만드는 국가균형발전 사업 추진 노력

3. **대한민국 위기극복 방안 마련**
2022년 2월 1차 추경에서 소득이 불안정한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 등을 위한 추가 지원금을 확보했고, 영상창작자 권리 강화 등 문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노력

2023년 포부 또는 목표 3가지

1. **민생·공동체 지키기**
민생을 챙기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 마련에 온 힘을 쏟고자 합니다. 2022년에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기업들의 약탈적 이익추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서민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

2. **지역 지키기**
충북대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진행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사업(RIS)'이 제대로 추진되어 충북대를 비롯한 충북지역 대학들은 바이오헬스 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서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향유의 확대를 위해 지역에 필요한 교육·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해갈 것

3. **교육 지키기**
대학교육 권한의 지자체 이양, 교육전문대학원 추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폐지, 교육자유특구 조성 등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논란이 새해부터 뜨겁습니다. 교육위원으로서 꼼꼼하게 검증하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 낙오하거나 뒤처지는 아이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따뜻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

국회의원 **임태영** (화공 77)



2022년 주요업적 3가지

1.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 연장 등 주**

요 재정사업 추진 및 제천·단양 글로벌관광도시 특별법, 아동복지법, 소상공인 지원법 등 민생법안들까지 지역주민께 약속드린 총선 공약을 성공적 진행하고 있으며 충북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도민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였다.

2. 2023년 제천·단양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2,587억원 국비 확보 및 행정안전부 특교세 170억원 투입으로 제천·단양의 안정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만들어 가고 있다.

3. 21대 국회 등원 직후부터 제천·단양 주민들의 희노애락이 모인 '임태영의 찾아가는 의정보고서' 때

달 발송함으로써 시·군민께 어떤 일을 하며 활동하는지 역점사업과 진행되는 업무추진에 관하여 소통을 하며 한 발 더 다가서는 의원으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포부 또는 목표 3가지

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생경제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민생경제를 살리며 나아가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지역 발전을 위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 제천역 경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발전 사업에 역점을 두고있으며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2023년 우리지역의 기쁨을 마련하는 해로 삼겠다.

3.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교통혁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드리는 데 모든 능력을 다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성과 상생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노력하는 우리지역의 사람! 최선을 다하는 우리나라의 사람! 빛나는 내일을 위해 정진해 나갈 것이다.

국회의원 **이장섭** (국문 82)



2022년 주요업적 3가지

1. **'청주산업단지 소부장지원센터 구축' 2023년 예산 45억 확보**
청주산단을 거점으로 오창·오송·옥산 산단을 연계해 반도체·IT·이차전지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소부장지원센터 구축' 사업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성공, 청주가

글로벌 첨단산업 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확보.

2. **현도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박차가 칭 '현도 시동지구 산업단지'**
2024년은 남청주 현도산단에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신규산단과 연구기관 유치 등을 통해 청주 북부권에 집중된 산업벨트를 서남부권으로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 **'청주교도소 이전' 위한 노력 본격화 올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개발방식을 제안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청주시와 충북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등 교도소 이전 노력을 앞장서 이끌어 왔고 전략 수립 용역 착수

등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2023년 포부 또는 목표 3가지

1. **충북의 첨단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충북은 국내 주요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반도체 기업이 다수 위치할 뿐 아니라 국토의 중심으로서 전국 각지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어, K-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서 충분한 성장잠재력 보유하며, 충북이 산업부의 '국가첨단전략기술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를 통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의 충북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수준높은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 **충북 청년들을 위한 취업 관련 정보 접근성 확대**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도내 대학생들에게 대기업과 공기업 등 입사 희망 기업들의 취업 관련 정보 접근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 차질없는 추진**
탄소중립은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으며, 기후위기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탄소발생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독려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청주시장 **이범석** (행정 85)



환경부의 지역환경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으며 새롭게 구성된 관광유치팀에서 대규모 테마파크나 위락 시설 조성에 대해 다양한 투자주체와 민자유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며 청주시 발전을 이어가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2022년 주요업적 3가지

1.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며 소통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청주시 조직을 일과 성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보다 역동적으로 현안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로부터 투자유치를 이끌고 지역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환경, 재난, 문화, 복지 등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2. 2023년 청주시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9.1% 증가한 3조 2,842억 원입니다. 소통공감도시, 꿀잼행복도시, 도농상생도시, 스마트안심도시, 미래산업도시라는 5가지 시정방침 아래 청주의 성장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3. 지난해 명품하천탐을 신설했고

2023년 포부 또는 목표 3가지

1.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장기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사업들은 청주의 미래를 바라보며 단계적으로 꼼꼼하게 추진해 왔으며, 기존의 현안들도 청주시의 미래를 위해 추진 방향을 재설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 올해부터는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고 있는 무심천과 미호강을 멋지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꿔 나갈 것이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꿀잼청주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 청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불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단양군수 **김문근** (행정대학원)



도 착실히 추진하였다.

3. 폐기물의 시멘트 부원료 사용에 대한 자원순환세 법제화 추진 시멘트공장이 소재한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폐기물의 시멘트 부원료 사용에 대한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2022년 주요업적 3가지

1. 시루섬의 기적 50주년 기념행사 - '희생과 헌신' 단양정신 전국에 알려 희생과 헌신으로 대홍수를 극적으로 이겨낸 시루섬 영웅들의 이야기를 직접 발굴해 시루섬의 기적 50주년 기념행사를 감동적으로 개최함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등에 방영되면서 '희생과 헌신'의 단양정신을 전국에 알리고 단양발전을 위한 희망의 초석으로 계승·발전하였다.
2. 수상레저·항공레저가 더해진 관광 단양 패러다임 진화 관광도시 중흥을 이끌었던 육상관광에 더해 수상레저와 항공레저로 과감한 관광 패러다임을 진화해 새로운 관광 단양 시대 초석을 다졌다. 제40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 등 각종 대회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양방산과 두산지구를 항공레저 메카로 성장시키는 프로젝트

2023년 포부 또는 목표 3가지

1.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실질적 원년 주민중심·감동행정 실천 관광과 농업,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단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사업 발굴해 지역의 향기와 색깔이 뚜렷한 문화를 찾고 만들면서, 민선 8기 군정의 청사진인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의 미래를 실현되도록 할 것 관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 행정으로 감동행정을 실현하겠다.
2. '인구 늘리기 총력' 인구 3만 회복 초석 마련 단양군 인구는 1968년 9만 4천여 명을 정점으로 현재 2만 7천 대까지 감소하였다. 임대아파트와 귀농·귀촌 단지, 도담지구 기반 등의 건립 조성을 통해 주택난에 따른 인구 유출을 최대한 막고 유입에 적극 나서겠다.

3. 자원순환세 법제화 및 항공레저·육상레저 통한 성장동력 구축 단양지역 300억 원 이상의 연간 세수액이 예상되는 자원순환세 법제화로 환경 오염 예방과 지역주민의 환경과 건강권 회복을 위한 시대적 소명 완수 수상레저와 항공

레저의 관광 활성화를 국제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국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할 계획 이를 토대로 전국 제일을 넘어선 국제 수상·항공 레저스포츠 도시로 육성하겠다.

음성군수 **조병옥**(행정대학원)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 등 우리 군 예산은 전년도 기준 9,887억원으로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23년 포부 또는 목표 3가지

2022년 주요업적 3가지

1. 음성군 지역 내 총생산(8조2841억원)은 8년 연속 도내 2위(전국군 단위 2위)를 유지하고 무역수지는 7억 94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200% 이상 증가해, 도내 2위(군 단위 1위_2022.11.기준)를 차지했다.
2. 청년고용률은 도내 1위, 15~64세 고용률 도내 2위, 민선 7기 이후 우량기업 등 9조 6천억원의 투자유치와 1만 3천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2년 연속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3. 지방세 수입은 역대 최대인 2,600억원을 달성하였고 올해는 1,300억

1. 음성군민은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을 실현하기 위해 품격 있는 2030 음성시 건설을 완성하는 것이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음성군 품격있는 교육 문화도시 조성고 품격 생활 인프라 확충하겠다.

2. 우리의 비전이 단지 희망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도록 ▲음성시를 향해 성장하는 음성군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음성군 ▲품격있는 음성군을 향해 10대 전략 100대 공약을 충실히 실천하겠다.

3. '사람 중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립소방병원 건립 지원과 상습도시침수 대응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 선제적으로 재난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

증평군수 **이재영** (정책대학원)



반가운 업적을 만들어 냈다.

2023년 포부 또는 목표 3가지

2022년 주요업적 3가지

1. 교부세 역대최대확보(29%증가) 보통교부세 820억, 특별교부세 133억 역대 최대 확보액으로 지난해 대비 29% 증가의 업적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 투자유치 7천억원 달성 (주)넥스플렉스 2,000억, SD바이오센서 1,880억, 한국알미늄 1,500억, 오스템 바이오 500억원으로 증평군 투자유치를 달성했습니다.
3. 온라인 증평군민 소통방「소통공감 증평밴드」 운영 정착과 도내 인구증가율 1위 주민불편 생활민원 즉시 해결과 쌍방향 주민의견 교환 및 청취의 장 마련을 통해 소통이 되는 증평군운영과 도내 인구증가율 1위를 달성하며

1. 미래 100년 기반조성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 조성고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산업 증평유치 통한 증평군 발전 기반 그리고 산업단지 직접화로 최첨단산업 유치를 꼭 이루어 발전 매대 100년 기반을 다지는 2023년을 만들겠다.

2.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돌봄시스템 구축 돌봄 협의체 구성과 돌봄시설 및 프로그램의 한눈엔 알수있는 돌봄지도제작, 돌봄 휴대폰 어플 제작, 마을 공동시설을 활용한 돌봄공간 확충(11개소 이상)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증평군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3. 지역거점형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부족한 시민 체육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조성을 목표로 지역거점 스포츠 인프라구축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증평군 살기좋은 증평군을 만들겠다.

도선봉 교수 (건축 82)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요? 최근 근황과 함께 동문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공학과 82학번으로 입학하고 졸업한 도선봉이라고 합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님들 가정에 만복이 임하시고 동문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한국국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우즈베키스탄 한국국제대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우즈베키스탄 한국국제대학교는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에 2019년 9월에 개교하여 13개 학과를 운영하는 한국인 설립의 우즈베키스탄 법인입니다. 인문사회학계는 한국어학과, 영어학과, 유아교육과, 관광경영학과, 경영회계학과, 국제통상학과 6개 학과이고 공학계는 건축공학과, 건설공학과,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화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7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과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1, 2학년 때는 한국어로 강의할 때 우즈베크어 통역사가 들어옵니다. 3, 4학년 때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통역없이 한국어로만 수업이 진행됩니다. 한국의 여러 대학과 협력하여 3+1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3년은 우리 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1년은 한국의 협력대학에서 수업하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에서 2개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행을 선택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건지요?

먼저 한국연구재단에서 파견하는 WFK TPC(Techno Peace Corp)인 한국과학기술지원단으로 몽골 후레대학교 건축토목학과에서 3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 학생을 가르치는 경험이 아주 소중한게 다가왔고, 다행히 우즈베키스탄 한국국제대학교의 교수로 초빙되어 다시 외국 학

생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여 재직기간 동안 특히 기억에 남거나 보람됐던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즈베키스탄 한국국제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공부하는 것은 우리나라 1980년대를 소환하는 듯한 학교생활입니다. 저는 한국어와 건축학을 교차 학습하면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학생 8명을 현재 3+1 협력 대학인 한국 선문대학교에 유학시킨 일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지난 겨울방학에 방문하여 만나 보니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매우 흡족한 마음을 안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는 고려인도 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한국인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 가르치면서 공부의 방향과 진로지도하는 가운데 서로 마음이 통하였던 것도 기억에 납니다.

페르가나와 청주를 오가는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일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주에서는 십수 년 동안 진행해 왔던 이주노동자인권복지에 관한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를 진행하는 친구와 함께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와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어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축과 도시의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관심으로 상당산성과 청주읍성 및 역사도시 청주의 이해와 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경실련, 도시재생, 마을활동가, 사회적 경제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KOICA 건축전문가로서 여러 개발협력국가들을 방문하여 ODA사업을 기획조사하고 평가하는 일에도 참여하여 점차 기회와 경험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모교에서의 대학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대학생이셨는지요?

저의 충북대학교에서의 학교 생활을 돌이켜 보면 1, 2학년 때는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나 일을 하기보다는 합창이나 바둑과 같은 취미 활동에 관심을 가졌고, 개신교계의 종교생활과 활동에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종교, 취미 등 3가지 범주에서 고루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군대 제대 후 복학해서는 전공학습 특히 건축설계에 집중하면서 종교활동도 역시 열심히 하였습니다. 대학원 생활에서는 건축역사와 건축설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습니다.

혹시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기적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시겠는지요? 혹시 바꾸고 싶은 것이 있는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돌이켜 보면 저의 대학생활은 어떤 뚜렷한 삶을 방향과 목표를 갖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평범한 학교와 교회 생활



을 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면 어떨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전공학습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고 할 때도 건축설계인지, 학문적 접근인지도 명확하게 정하여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젊은 시절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모두 잘할 수는 없었을 텐데 욕심을 내서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는 못한 결과가 지금의 삶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 '유라시아 경계너머'의 대표이사십니다. 유라시아 경계너머는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 유라시아 경계너머라는 회사는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청년학생의 주거문제와 고독한 노인들과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 등을 함께 고려한 공동체 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행복하고 걱정없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빠른 경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몽골과 우즈베크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와 같은 주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 나라에 살만한 청년학생 주택과 공동체 주택을 지어서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감염병의 위기, 기후 위기, 경제 위기 등 위기와 대전환의 시기에 청년과 대학생의 위기감이 큰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대 사회 자체가 위기이고 우리는 그것을 피해 갈 수 없는 전지구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을 스스로 가다듬고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과 포부에 대해 말씀해주시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일상적으로 지속된 어떤 시간의 사용과 정성을 다한 일들의 축적으로 말미암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다 이루

지 못한 꿈인 진실한 <건축가>로서의 비상을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미 설립한 회사를 통해 청년 학생들에게 행복한 젊은 날을 보낼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연을 맺은 한국 충북대, 몽골 후레대, 우즈베크 국제대학교에 건축장학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곧 다가올 노년을 위해 괴산에 있는 고향에 들어가 오두막 한 채를 짓고 400여 년 이어 살아온 할아버지들을 의지하면서 남은 여생을 건축과 집필활동에 전념하면서 살고자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력]

- 충북 괴산 출생
- 충북대학교 학사(1988), 석사(1991), 박사(2002)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강사
- 고려대학교 고층건물시공연구단 연구기획팀장
- (주)무영건축사사무소 기술연구소장
- (주)토문건축사사무소 기술연구소장
- 몽골 후레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주)유라시아 경계너머(사회적주택연구소) 대표(2020~현재)
- 우즈베키스탄 한국국제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2021~현재)

<박진희 편집위원>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김철문** 경무관 (법학 85)



우선 동문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북대 동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법학과 85학번이구요, 현재는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꽃, 경찰의 별이라고 불리는 경무관 승진과 함께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사도 하셨을테고, 일터도 달라지셨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교 동문 선후배님들의 전폭적인 응원과 성원으로 금년 1월 충주경찰서장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수원에 있고요, 제 업무는 도경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를 총괄하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큰 지역이다 보니 사건이 많고, 다양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충북이 고향은 아니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충북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태어난 곳은 경북 청송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청송에서 살았구요. 제가 6학년 때 형이 충북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가족들 모두가 청주로 이사를 하게된 것이지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청주에서 다녔고 경찰

이 되고도 충북을 떠나 있었던 시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충북이 고향이나 다름이 없지요.

충북청 요직을 두루 거치신 것으로 압니다. 첫 발령지가 청주였는지요?

첫 발령지는 충주경찰서였습니다. 그 후에는 괴산, 흥덕, 옥천 등 도내 경찰서와 도경에서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경감 때부터는 대부분 수사업무를 했고, 총경 승진 후에는 충남청 형사과장과 세종서장을 하면서 충북을 잠시 떠나 있었네요.

첫 발령지도 충주였고 충주서장님으로 재직 중에 경무관 승진도 하셨네요. 재직기간 동안 보람도 많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보람을 느꼈던 순간도 많으셨겠습니까.

많은 일이 있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추억도 충주에서의 일이에요. 지난해 충주서에서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가장 시골인 소태초등학교 전교생(20명)을 경찰서로 초대해서 하루를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싸이카 타보기, 지문 감식, 서장실 오픈 등등의 행사로 참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웃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 경찰의 역할이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힘든 고비도 많으셨을텐데, 그런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자신만의 좌우명이 있으신지요?

굳이 좌우명이라도 한다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자'와 '인생도처 유상수'라는 말을 늘 명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생도처 유상수'란 세상 곳곳에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힘든 순간을 마주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겸손한 자세로 진정성 있게 사람을 대하면 그 힘든 순간도 무리 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경무관님께서 어린 시절 꿈도 '경찰'이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니다. 누구나 어떤 직업을 고민하지만 시기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법학이라는 제 학부 전공을 살리면서도 사회에 공헌하

는 직업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그 직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의 직업이 제 나이 4-50대가 됐을 때 우리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를 생각해서 선택했다고 할까요. (후회 없는 선택이셨나요?)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MZ세대들은 평생직장, 평생직업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직업이나 대학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대학 저학년 때 직업에 대한 탐구를 진지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도 다양한 직업이 있고, 현재보다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더 무궁무진한 직업들도 있으니, 관심 있는 직종에 대해 선배들도 만나보고, 관련 서적도 부지런히 탐구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지식과 논리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됐다면 겁내지 말라는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충북대학교가 세계 최고라는 확신과 우리 교수님들이 가장 훌륭한 분들이라는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데 절반은 다가선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행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여행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이 대학 시절의 가장 큰 후회입니다. 20대 때 여행을 많이 했더라면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란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여행을 많이 못 했던 것이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다시 태어나신다고 해도 경찰이 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회는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네요. 여행가이드나 문화해설사 같은 일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요사이 퇴임 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합니다. (퇴임하신 이후에 여행가이드나 문화해설사가 되신 경무관님의 모습을 상상해보게 되는데요?) 저에게도 즐거운 상상입니다.

[약력]

충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경찰 간부 후보생 41기 (경위 임관)
충남경찰청 형사과장, 충북경찰청 정보·수사과장,
세종경찰서장, 청원경찰서장, 충주경찰서장 역임
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박진희 편집위원〉

정시경쟁률 6년 연속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1위

우리 대학이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1,071명 모집에 7,038명이 지원해 6.57: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이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중 가장 높은 경쟁률로 우리 대학은 6년 연속 정시경쟁률 국가거점국립대학교 1위를 했다.

정시 가군 수능 일반전형은 총 437명 선발에 3,117명이 지원해 7.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정시 나군 수능 일반전형은 552명 모집에 3,541명이 지원해 6.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이 나타난 학과는 정시 가군은 소비자학과로 16.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정시 나군에서는 사학과가 13.8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안병우 입학본부장은 “6년 연속 정시 경쟁률 국가거점국립대학교 1위의 쾌거는 충북대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높은 성과와 저력을 입증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대학은 입학생을 대상으로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레지덴셜 칼리지(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New-CHANGE 역량중심의 교육을 제공해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위한 신규 시설사업 국비 500억 원 확보

우리 대학이 2023년도 신규 시설사업 추진에 국비 총 500억 원을 확보해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우리 대학은 2023년도 신규 시설사업으로 반려동물암센터(동물병원) 신축 190억 원,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리모델링 120억 원, 오송 BTL기숙사 신축 190억 원 등 3개 사업이 선정돼 5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예산 확보로 개신캠퍼스에 반려동물을 위한 암센터(동물병원)를 신축한다. 총사업비 190억 원이 투입되는 반려동물암센터(동물병원)는 반려동물 질병 진단, 치료 및 연구시설 설립을 통한 중부 지역 거점 국립의료기관 역할 수행에 앞장선다. 또한, 열악한 진료 및 임상실습 공간 부족으로 학생들의 임상교육과 동물진료에 대한 어려움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의 연구환경도 개선한다. 2004년 개관 이후 18년간 24시간 상시 운영해온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는 주요 시설 및 장비와 장비 노후에 따라 환경개선이 필요했으며,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해 고도의 청정화된 사육시설을 조성하고, 동물실험 연구지원 및 산학연 연계 연구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 재학생들의 정주여건도 개선된다. 오송캠퍼스에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기숙사를 신축한다. 현재 오송캠퍼스에 기숙시설이 미비하여 학생들이 개신캠퍼스 기숙사를 이용하거나 자취생활을 하는 등의 불편으로 기숙사 신축이 요구되어 왔다. 새로 신축하는 생활관은 406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시설로 지을 예정이며 민간투자사업 방식(BTL)으로 진행한다.



법학전문대학원 14기 학생들, 제 14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민사부문 청연상 수상

법학전문대학원 14기 신호철, 신창환, 백소현씨로 구성된 ‘충북대 법전원팀’이 지난 1월 3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민사부문에서 3등상인 청연상을 수상했다.

이번 ‘제1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46개팀(민사 104개팀, 형사 42개팀)이 참가했으며, 본·결선이 열린 지난 1월 3일에는 민사 16개팀, 형사 16개팀이 본선에 진출해 자신들의 역량을 펼쳤다.

본선 문제는 민사부문은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조합채권인지 여부’, ‘공동임차인 중 일부가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됐고, 형사부문에서는 ‘성매매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의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영장 없는 범행현장 사진의 증거능력’ 등의 문제가 나왔다.

‘충북대 법전원팀’은 민사부문의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조합채권인지 여부’ 문제에서 문제의 이해도, 서면작성의 적정성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한편, 대한민국 사법부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김병로 선생의 호를 인용해 만든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되어 로스쿨생들이 법적 사고력을 키우고 법정 변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최고의 법정 변론대회다.



우리 대학 박물관, '2022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우수상 수상

충북대 박물관이 지난 12월 22일(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서 개최한 2022년 국고지원사업 성과 포럼에

서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충북대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에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선정돼 이번 사업 선정으로 1980년대 당시 충북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탁본한 ‘반구대 암각화 탁본’을 활용한 특별전시를 5월부터 7월까지 개최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민들에게 탁본에 관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선사시대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문화강좌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민들과 교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

또한,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사업 부문에서는 임기수 박물관 조교가 수기공모전 장려상을 수상했다.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은 대학박물관에 오랜 기간 보관된 미정리 유물의 등록·정리, 보고서 발간과 유물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북대학교박물관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선정되어 단양 수양개 유적, 청주 봉명동 유적 등 미정리 유물 30,000여 점을 정리하고 있다.

김영관 충북대 박물관장은 “국립대학 박물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받은 만큼 이번 수상을 뜻깊게 생각한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대학박물관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좋은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과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970년 개관한 충북대학교 박물관은 중원문화의 실제 규명을 위한 학술조사와 연구, 국제학술교류 및 평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 대학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 있으며,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신소재공학과 이동주 교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신소재공학과 이동주 교수가 지난 12월 22일(목)에 산학연충북지역협의회, 산학연대전지역협의회가 주최한 ‘2022년 충청권(대전·세종·충북) 산학연 우수성과 연합 발표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연합발표회는 지역대학·중소기업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공유 및 기술교류와 산학협력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격려를 통한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산학연 참여기업, 교수, 대학 및 관계기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동주 교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해소에 기여하고 산학연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동주 교수는 “실험실 내 학생들과 학과 교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준 충북대 등 모두의 도움이 컸다”며 “앞으로도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져 지역중소기업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구환경과학과 서용석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장 수상

지구환경과학과 서용석 교수가 2022년도 국민생활 연구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서용석 교수는 산사태 및 단층물질 관련 학술논문과 특허 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실에서 자체 개발한 ‘산사태 재해예측 기술’을 활용하여 단양군 및 충주시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재해 취약도를 작성하고 맞춤형 복구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특히 충북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에 참여해 지진 및 산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방재조직 프로그램’을 단양군에 현장 적용하고 있다.

서용석 교수는 현재 대한지질공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9월 국제지질공학회 IAEG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당선돼 오는 2023년 1월부터 4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간호학과 곽은주씨, 2022년 한국간호교육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간호학과 곽은주 씨(박사 2년, 지도교수 박승미)가 지난 12월 21일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열린 2022년 한국간호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연구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날 곽은주씨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 역량 예측요인으로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을 규명했다. 이에 환자안전에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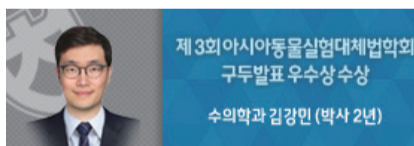
한 핵심 인력이 될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언했다. 이 논문은 2022년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에 출판된 논문 39편 중 편집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간호교육에 기여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곽주씨는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을 통해 다양한 연구 방법을 공부하고, 직접 연구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간호교육학회는 SCOPUS 인준 국제학술지를 발행하는 저명학회다.



2022년 한국간호교육학회의 우수논문상 수상
간호학과 곽주씨 (박사 2)

**수의학과 김강민씨,
제 3회 아시아동물 실험 대체법학회
구두발표 우수상 수상**

수의학과 김강민씨(박사 2년, 지도교수 정의배)가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 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2년 제3회 아시아동물실험대체법학회(ACAAE)’에서 구두발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강민씨는 ‘인간 신경전구세포에서 Ki-67과 BrdU를 이용한 신경발생독성시험의 평가’에 대한 내용의 주제로 발표해 상을 받았다. 이 연구는 마우스를 이용한 신경발생독성 시험법 대신 인간 신경전구세포를 이용하여 Ki-67과 BrdU 두 가지의 염색기법으로 신경발생독성 판별식을 도출해 내었고 향후 다양한 물질의 신경발생독성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시아동물실험대체법학회(ACAAE)는 아시아 국가에서 시행되는 격년제 행사로서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및 아시아의 여러 국가의 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동물 사용을 대체하고 줄이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개발하는데 힘쓰고 있다.



제 3회 아시아동물실험대체법학회 구두발표 우수상 수상
수의학과 김강민 (박사 2년)

**원예과학과 오명민 교수,
제 30회 화농상 수상**

원예과학과 오명민 교수가 지난 12월 13일 서울대에서 열린 ‘2022년도 제30회 화농상 시상식’에서 화농상을 수상했다. 오명민 교수는 ‘Electric stimulation promotes growth, mineral uptake, and antioxidant accumulation in

kale.(Bioelectrochemistry 138, 107727(2021), 전기적 자극은 케일의 생장, 미네랄 흡수 및 항산화물질 축적을 향상시킨다)’라는 논문으로 상을 받았다. 이 연구는 다른 환경적 요인이 제어되는 밀폐형 식물 생산 시스템에서 전기적 자극에 대한 작물의 반응을 실험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담고 있어, 현대적인 방법으로 전기장의 효과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최초의 논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앞으로 식물 주변에 형성된 전기장에 의한 식물 반응 메커니즘을 연구해야 하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식물 주변의 전기장이 스마트 온실이나 수직농장에서 작물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새로운 환경요소를 제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농업의 기초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어 화농상 수상논문으로 선정됐다. 한편, 화농연학재단이 주관하는 화농상은 서울대 농과대학의 초대 학장이었던 화농 조백현 선생이 상금과 비용을 쾌척해 농생명 과학 분야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후학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1987년 ‘제1회 화농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농생명분야 연구개발에 큰 업적을 이룬 50세 이하의 교수 중 농업관련 학회에서 추천받아 엄정한 연구논문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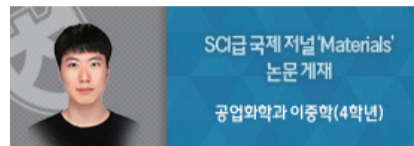


제 30회 화농상 수상
원예과학과 오명민 교수

**공업화학학과 이중학 학생,
SCI급 국제 저널에 논문 게재**

공업화학학과 이중학(4학년, 바이오헬스공유대학 방사광융합학과 부전공) 학부생이 작성한 논문이 지난 11월 11일에 SCI급 국제 저널인 ‘Materials’의 Special Issue ‘Advances in Nanomaterials in Medical Science’에 게재됐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 Bio-PRIDE 공유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이중학 학생의 논문 ‘Biofunctional Layered Double Hydroxide Nanohybrids for Cancer Therapy (암 치료를 위한 바이오기능성 2차원 금속 이중층 수산화물 나노하이브리드)’은 교신 저자인 박대환 공업화학학과 교수(바이오헬스공유대학 부학장, 화장품산업학과 학과장, 방사광융합학과 겸직)의 지도를 받아 작성됐다. 이 논문은 바이오세라믹 소재인 Layered Double Hydroxide 하이브리드 기술을 이용한 암 치료 분야에 필요한 제조 및 기반 기술, 방사광가속기 분석기술, 제약바이오융합 기술 동향과 향후 전망 등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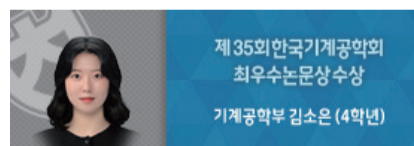
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논문으로 학부생이 SCI 저널에 리뷰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박대환 교수는 “본교 대학원에 진학 예정인 학부생이 해당 분야의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무기 세라믹 소재의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최신 기술 동향과 기초 지식을 높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자 우수한 결과물”라고 소감을 전했다.



SCI급 국제 저널 ‘Materials’ 논문 게재
공업화학학과 이중학(4학년)

**기계공학부 김소은 학생,
제 35회 한국기계공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기계공학부 김소은(4학년, 지도교수 김건휘)학생이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0일 까지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된 ‘한국기계공학회 35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김소은 학생은 포스터 발표 ‘NANO/MEMS/미세가공’ 세션에서 ‘복합 열처리 공정을 통한 금속 나노섬유 네트워크 제작’을 주제로 발표해 상을 받았다. 이 연구는 전기 방사된 섬유 junction-free 형상을 위하여 Hot plate로만 진행되던 단일 열처리 방식에서 제기되었던 시편의 손상 문제를 Oven이 접목된 복합 열처리 방식의 적용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더 좋은 전기적 특성을 갖는 전도성 네트워크 개발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다. 김소은 학생이 제1저자이고, 기계공학부 김건휘 교수와 국립안동대학교 기계로봇공학과 안태창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한편, 올해로 35주년을 맞은 ‘한국기계공학회 추계학술대회’는 기계가공 및 생산공학 기술에 관한 학술교류의 장이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제조혁신 기술”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제 35회 한국기계공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기계공학부 김소은 (4학년)

**약학대 MRC연구팀, 조현병 원인의
직접 인자 세계 최초 규명**

약학대학 기초의과학 선도연구센터(MRC) 연구팀이 뇌 내피 세포의 막 횡단 단백질 TNFα가 조현병 원인의 직접적인 인자임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여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분석을 통해 조현병 환자의 뇌에서 면

역 기능 및 염증과 관련된 유전자의 상향 조절 및 공동 발현 네트워크를 규명했으며, ‘Overexpression of Transmembrane TNFα in brain endothelial cells induces schizophrenia-relevant behaviors(주저자: 여인준 학대학 박사후연구원, 윤재석 약학과 교수, 공동 교신저자: 홍진태 약학과 교수, 김상현 미국 스탠퍼드 의학연구소 부소장, 참여자: 한상배 약학과 교수, 손동주 약학과 교수, 마리 웹스터(MJ Webster) 스탠퍼드 의학 연구소장)’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조현병 환자 64명과 정상대조군 64명의 전전두엽 피질 및 해마에서 RNA-seq 데이터를 사용해 공동 발현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조현병 환자의 뇌 내피 세포, 미세아교세포에서 면역/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공동 발현 유전자 모듈의 잠재적 조절자로서 막횡단 TNFα(tmTNFα)를 특정했다. 또한, 68명의 조현병 환자와 135명의 정상대조군의 뇌 샘플에서 면역/염증 관련 모듈 및 조현병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조절하는 TNF 신호 전달 경로를 분석하고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얻은 분석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특수한 adeno associated virus를 1회 정맥 주사하여 마우스의 뇌 내피세포에서 절단 불가능한 형태의 (uc)-tmTNFα의 단기 과발현을 유도해 뇌 내피 세포에서 tmTNFα의 과발현된 마우스 질병 모델을 만들어 조현병 유사 행동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이 질병 모델에서 인지장애, 비정상적인 감각운동, 메스암페타민 유도 운동 활동 증가 및 메스암페타민 유도 신경전달물질 감소 등 조현병 관련한 행동 결함을 발견했다. 이 뇌 내피세포의 uc-tmTNFα는 TNF 수용체 2(TNFR2)에 의해 매개됐고 인접한 성상교세포와 뉴런에서 TNFR2를 매개로 신호전달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이 마우스 질병 모델의 뇌를 가지고 모듈 분석결과 신경전달물질 신호전달경로를 포함하는 신경모듈 관련 유전자가 하향 조절되는 반면 면역/염증 관련 모듈 유전자는 상향 조절됨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tmTNFα가 조현병의 임상적 특징에 기여하는 신경전달물질 신호전달 경로를 조절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치료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새로운 진단 바이오마커 및 치료 타겟으로서의 높은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연구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지원 사업을 통해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의과대학 연구 분야 최상위 전문학술지인 Molecular Psychiatry(Impact Factor 13.4)의 2022년 11월 인터넷 판에 게재됐다.

(박준영 편집위원)

LG에너지솔루션 **윤관섭** 공장장 (안전 94)



먼저 동문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공학과 졸업생 94학번 윤관섭입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 환경안전담당으로 안전환경 총괄직임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 공장장으로 승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소개와 전반적인 직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근무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은 1992년 배터리 연구를 시작으로 2020년 12월 LG화학 전지사업본부에서 독립한 글로벌 배터리 기업으로, 한국, 미국, 폴란드, 중국의 리튬이온배터리 생산시설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의 '자동차전지', 크기와 모양의 제약을 넘어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소형전지',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 한국 오창1, 2공장의 안전환경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안전환경 규정준수 활동을 통한 Compliance Risk 관리 업무, 고위험설비/공정/화학물질의 선행적 Risk 관리를 통한 중대산업사고 예방활동, 시스템에 의한 안전환경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 화재폭발 예방 및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확립, 임직원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폐자원 가치 향상 활동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회사에 입사하여 어떤 길을 걸어 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1년 졸업하고 LG화학에 입사하여, 울산, 청주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LG화학 전지사업본부 분할 시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LG그룹공채로 입사하여 생각지도 못한 울산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연고는 없지만 제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과 새로운 지역에 대한 동경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변에 좋은 선후배 및 동기 덕분에 업무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도전과 경험, 관계를 중요시 했던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올 때마다 상사분들이 적극 추천해 주셔서 청주에 오창공장 신설, 새로운 환경분야의 업무, 회사 분할 시 이동 등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안전, 소방, 보건, 환경의 업무 및 신증설 공장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업무를 추진하고 직원을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사 입사 후 어떤 때 가장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 했는지?

입사하고 바로 중대산업사고에 직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경험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지만 같이 일하는 직장 선배 분들의 대응 및 조언을 통해 업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갔고, 제가 할 것이 있고 다른 직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안전환경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으며, 지금까지 업무를 하는데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남편, 어떤 아빠인지

친구 같은 남편, 친구 같은 아빠가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같이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책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는 등 특별하지는 않지만 친구처럼 항상 많은 것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면서 캐릭터 등 게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저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서 대화가 잘 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대화를 할려고 시작했던 게임을 이제는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좋아하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서로 빠져 들면서 공통의 이야기도 하고 친구처럼 아내와 아이와 지내는 것 같습니다.

충북대 재학 시절 어떤 학생이셨는지? 기억에 남는 일이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 해 주세요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평소에는 수업듣고, 레포트 작성하고, 쉬는 시간에는 선후배 및 동기들과 많은 이야기도 하고 운동, 여행 등을 했습니다. 다만 제 성격 탓인지, 호기심 때문인지 많이 도전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1학년 겨울방학에 선배의 조언으로 대한적십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강사 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주변 대학의 분들을 많이 알게 되고, 같이 초중고 학교에서 응급처치 강사활동을 하다 보니 좋은 경험과 좋은 인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니시면서 공부하고 계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전공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졸업 후 같은 과 친구의 제안으로 안전공학 석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회사업무, 가정 등으로 쉽게 시작을 하지 못했지만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조언도 많이 해줘서 일단 해 보자고 하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방화 및 안전성 평가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화학공장에 일어날 수 있는 화재폭발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실험, 검증 등을 하여 좀더 안전한 방법 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연구 및 프로젝트 추진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환경 Risk에 대해 다방면으로 접근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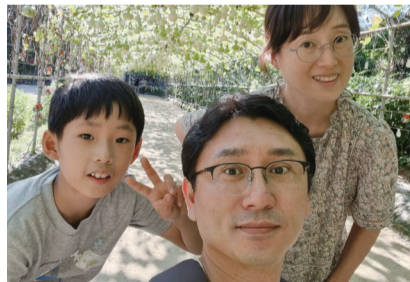
대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충고가 있다면?

저 또한 졸업 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을 믿고 제조업 분야의 안전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내가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할 것인지 목표를 가지고 이에 대한 준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찌면 당연한 것인데도, 회사의 업무 및 면접 등을 통해 느낀 점은 기본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학업, 어학 등 기본적인 것 외에도 목표한 바를 위해 노력한 부분을 잘 소개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을 위해 준비를 별도로 하였으면 하고, 자신감있게 이야기하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총동문회나 모교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Global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환학생 등의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합니다.



[약력]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석사 / 박사수료
- LG화학 온산 안전파트 입사(01)
- LG화학 청주 환경팀장
- LG에너지솔루션 오창 환경팀장
-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안전보건팀장
- LG에너지솔루션 오창 환경안전 공장장(22.10.)

<황동민 편집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신홍섭** 본부장 (경영 84)



충북대 동문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묘년 올 한해 동문 가족 모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모교 경영학과 84학번 졸업생 신홍섭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북지역본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한국농어촌공사는 1908년부터 옥수 서부수리조합을 시작으로, 지난 115년 동안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 조성 및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임무는 농어촌 공간을 대상으로 땅(地), 물(水), 사람(人), 마을(村)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용수개발, 배수 개선,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을, 물에서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용수 확보, 깨끗한 농어촌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용수관리 사업을 합니다. 또 사람은 젊은 창업 농부부터 고령 농업인까지 영농정착, 농가소득증대,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은행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마을에서는 농어촌에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농산업을 융·복합하여 농어촌 지역의 가치를 증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22년에 농정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안전, 신뢰, 혁신'을 3대 핵심 가치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앞장설 계획입니다.

충북지역본부는 저수지 187개소, 양수장 215개소, 배수장 34개소, 취입보 537개소 등 총 1147개소의 수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수지를 통해 약 2억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지역본부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4차 산업혁명과 미래농업을 위한 '지역특화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단은 제천 바이오 첨단 농업복합단지(331억 원)와 임대형 스마트팜(200억 원), 충주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194억 원), 괴산 노

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253억 원)을 추진중입니다. 충북지역본부는 '농업을 든든하게 농촌을 행복하게' 만드는 충북지역 농어촌 일꾼이 되어 충북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충북도와 함께 충북을 '스마트·유기농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는 어떤 계기로 입문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어린 시절 농촌에서 자란 영향도 있지만, 평소 농어촌의 가치 증진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의 경제·사회·환경적 발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1991년 농어촌진흥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본사(경기도 의왕시, 전라남도 나주시)와 충북 관내의 본부, 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방면의 업무 영역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본부장님의 대학 시절은 어땠나요?

보통의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업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선후배들과 잘 어울리고 매사 적극적으로 생활한 거 같습니다. 당시는 지금과 다른 캠퍼스 문화가 있었습니다. 매사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요즘 후배들과는 달리 낭만을 즐기는 대학생활을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요?

여름방학 때면 친구들과 농촌활동을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농촌일손 돕기를 하면서 땀도 흘리며 농사일의 고단함도 알게 되고, 저녁에는 동기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하루의 피로를 날려버리는 그런 추억이 생각납니다. 아마도 그 시절의 경험 덕분에 농어촌·농어업 분야에 좀 더 애착을 갖게 됐고, 직업도 농어촌 분야로 선택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장 내 충북대 동문 모임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공사 임직원 중 모교 출신은 총 300여 명이며, 현재 재직 중인 동문은 약

2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공사 동문회는 1분기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선후배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각종 모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동문회칙에 의거 동문 및 배우자 애경사 지원, 신입동문 축하 꽃다발 전달식, 승진 및 학위취득 격려, 퇴직동문 송별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수별 정기모임, 선배들과 신입동문과의 대화, 동문간 명랑운동회 진행 등 동문간 결속력 증진에도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충북대 동문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신입사원 공채 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전형을 준비하는 예비동문들을 대상으로 입사 1, 2년차 동문들이 '1:1 매칭 시스템'으로 합격노하우 및 면접준비의 올바른 방향, 면접 당일 컨디션 관리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매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도별 면접자료를 공유해 면접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줘 한 명의 동문이라도 더 합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칭 시스템 시행 이후 신입동문 합격률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총동문회 신년회,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총동문 체육대회 등 총동문회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학교 정원 감소로 사라지는 학교들이 많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역 거점대학으로 지속가능한 모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내 환경도 중요하지



만 우수한 동문들이 많이 배출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꼭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도 정계, 재계,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훌륭한 동문들이 많이 계십니다. 재학생 뿐만 아니라 예비수험생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롤모델이 되어 지속가능한 모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충북대 동문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지요.

사랑하는 동문 선후배 여러분 희망찬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검은 토끼처럼 힘찬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공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모교 후배들에게 알려줄 노하우가 있다면?

농어촌공사는 신입사원 채용 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 단계를 거칩니다. 서류전형은 기본적으로 자격증과 어학성적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고용디딤돌 수료생이나 우수인턴인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니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필기전형에서는 직업기초능력(NCS)은 만점을 받기 어려우니 직무수행능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직업기초능력보다는 직무수행능력(전공)이 더 중요합니다.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모두 농어촌공사 과거 출제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면접전형에서는 직무수행능력 면접과 직업기초능력 면접을 보는데 면접 스테디를 통해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면접 후기 등을 참고해 예상 질문 답변을 미리 준비해 발표연습을 하고, 답변은 최대한 간결하고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보람있게 했던 일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공사에 30여 년을 몸담으며 우리 농업·농촌의 변화·발전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느끼며 함께 성장해 왔다는 점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본사 수자원기획처 근무 때 전국에 산재해 있는 농업 기반시설에 40여 년 이상 적법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한전주 및 통신 3사(SK, KT, LG) 통신주의 무단점용료의 징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 3사와의 2년 6개월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무단점용료를 징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 사용허가로 전환해 유지관리 재원을 마련하는 등 공사 경영 개선에 기여한 걸 잊을 수 없습니다. 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지침'을 개정, 행정 절차 간소화로 국민불편 해소 및 사용허가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사용허가 구비서류 간소화, 사용허가 기간 10년으로 연장, 저수지 수면의 야간 유람선운행 허용으로 농업기반시설 관광자원화 및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공사 경영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발전의 간절함을 담아,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약력]

- 충북 진천 출생
- 충북 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
- 한국농어촌공사 입사(91)
-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지은행 부장
- 수자원기획처 시설운영부장
-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 부장
- 충북지역본부 진천지사장
- 충북지역본부장(21.9.)

〈장기우 편집위원〉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엠솔루션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2차전지 방재 솔루션 / 2차전지 화재감지시스템
2차전지 인렉스프링클러 / 소방관리업



주식회사 엠솔루션



“ 미국, 유럽으로 사업영역 확장, 700만 불 수출탑 수상
 관심분야 꾸준한 연구와 동향파악 성공 지름길
 충북대병원에 3,000만원 기탁 ESG 선구자 ”

정희섭 동문은 청주에서 소방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망회사인 (주)엠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

(주)엠솔루션은 청주시 청원구 외남로에 위치한 기업으로
 해외에 소방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소방관련설비를 설계,
 관리하는 전문업체이다. 최근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충북대학교병원 첨단암병원(의생명진료연구동)을 건립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회사 운영과 ESG에도 솔선수범하고 있는
 마음씨 좋은 동문이다.

정희섭 동문과 일문일답을 나눴다. <안태희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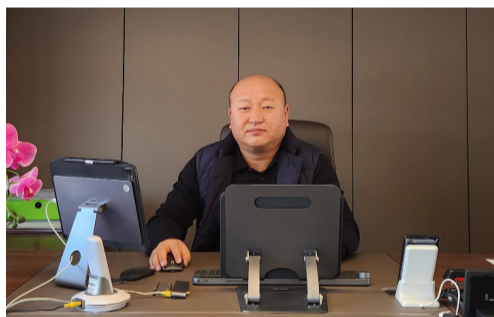


2차전지 소방솔루션의 세계 최강자 '엠솔루션'

대표이사 정희섭(건축 87)

먼저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엠솔루션은 최고의 인적자원과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차전지 산업에 특화된 화재 예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처럼 관심을 받기 전인 2007년부터 2차 전지 생산 과정에서의 화재 리스크를 줄이고자 노력하여 누구보다 먼저 2차전지 전용 화재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다양한 방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 유럽, 미국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글로벌 NO.1이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고3 때 우연히 접한 이문열 작가의 '젊은 날의 초상'이라는 책을 읽고 젊음과 대학 생활에 대한 낭만을 가득 안으며 다양한 교내활동을 하고 이곳저곳 여행을 다닌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재학 시절 틈틈이 도서관에서 읽은 많은 책들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 저에게 수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수출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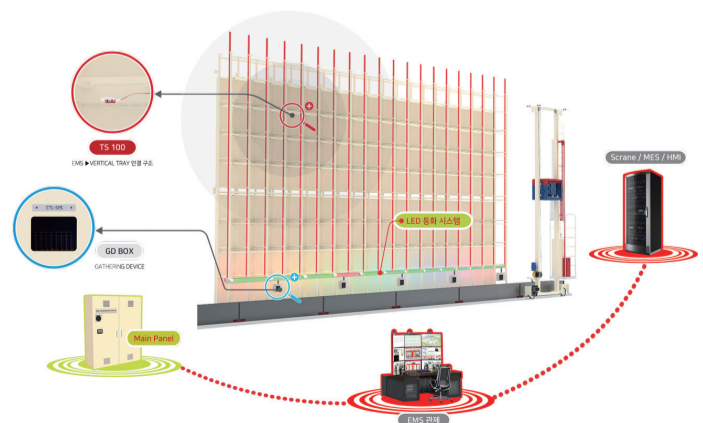
처음에는 미미하였지만 꾸준히 성장하여 2020년에는 700만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수출의 탑' 수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글로벌 기업들부터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까지 2차전지 시장 선점을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시장은 빠른 속도로 커져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수출액을 달성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철학은 무엇이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노력하는 자에게는 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기회가 찾아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모른 채 지나칩니다. 하지만 평소에 준비가 되어있다면 그 기회를 잘 포착하여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매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저 자신에게 집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로는 배우자와 1남 1녀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자수성가를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평소에 기울이십니까?

사업적으로 성공하게 된 계기는 우연찮은 기회에 LG CNS社에서 연기감지기 관련 제의가 들어와 1년여 넘는 시간 동안 감지기와 관련된 학습을 하고 관련 업체를 쫓아다니며 노력한 결과, 해답을 얻어 지금까지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또한 운이 좋게 LG社의 배터리 사업 시작부터 궤도를 같이 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호기심이 많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기사와 정보를 탐독하고 그것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신문방송사 이동희 편집간사(정치외교 91)



충북대 동문 가족들에게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북대 신문방송사 편집간사를 맡고 있는 이동희(정치외교 91)입니다. 저는 국자 신문인 '충북대신문'과 영자 신문인 'The Chungbuk Times'의 기자, 그리고 '교육방송국(CUBS)'국원들을 지도·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교 교육방송국과 신문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요?

1961년 11월 동아리 형식으로 시작한 교육방송국은 많은 변화를 거쳐 현재는 라디오 방송과 영상물 제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학내 설치된 옥외 스피커로 송출합니다. 낮 12시부터 15분 정도 방송합니다. 영상물은 영상뉴스, 보이는 라디오, 동아리 탐구생활, V-log, 달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방송국에서 제작한 콘텐츠는 유튜브 채널(충북대학교 교육방송국 CUBS)과 신문방송사 홈페이지(https://press.cbnu.ac.kr)를 통해 공개합니다. 신문사는 국자인 '충북대신문'과 영자인 'The Chungbuk Times'를 발간합니다. 1955년 5월 첫 발간 때 제호는 '청주농대신문'이었는데, 이후 '농대신문'(1955), '충북대학보'(1957)로 제호를 변경하다 1978년 3월부터 지금의 '충북대신문' 제호를 사용합니다. '충북대신문'은 5,000부씩 연 8회 발간하는데 올해

1월 기준 지령은 970호입니다. 1973년 12월 영어교육과에서 홍보지 성격으로 처음 발행한 'The Chungbuk Times'는 현재는 신문으로 변경해 3,000부씩 연 6회 발간합니다. 올해 1월 기준 지령은 207호입니다. 발간된 신문은 학내에 우선 배포하고, 구독신청자에게 무료로 우편 발송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메일 웹진으로 편집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합니다. 신문방송사의 일차적 목적은 학내 구성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그에 앞서 미래의 언론인을 육성하고, 우리 학교의 역사와 시대상을 기록하는 사관(史官)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국과 신문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됐는데, 언제부터 통합 운영이 됐나요.

개국하고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되던 교육방송국은 1983년 3월 정식 부속기관으로 승격되면서 학생처장이 방송국장을 겸직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운영에 있어 동아리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8월 신문사와 방송국을 통합해 지금의 '신문방송사'가 되었습니다. 통합 이후 방송국은 스튜디오와 방송 장비를 새로 정비하고 기존의 라디오 중심 운영에서 탈피해 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국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방송 내용과 신문 보도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지금은 예산 문제로 못하지만, 해마다 11월에 교육방송국원들이 만든 여러 미디어 콘텐츠를 소개하는 '방송제'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광고, 다큐, 드라

마, 라디오 현장 방송 등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선보이는데, 그때마다 학생들의 실력과 열정에 감탄하던 생각이 나네요. 기억에 남는 신문 기사는 학생기자들이 직접 현장을 취재해 보도한 기사들로 2014년 여수 기름유출, 2016년 성주 사드 배치, 2017년 소녀상 관련 보도 등입니다.

동문들에게 방송과 신문 제작 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방송국은 분야별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방송국에 처음 들어온 국원은 한 학기 동안 수습 기간을 거쳐 제작부, 기술부, 아나운서부 중 하나로 배정합니다. 제작은 흔히 아시는 PD인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작가 일까지 합니다. 기술은 촬영, 녹음, 편집 등의 일을 하고요, 아나운서는 다 아시죠. 방송 프로그램은 학기별로 편성되는데, 개강 전 국원이 모여 정합니다.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프로그램별로 업무를 분담해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회의, 원고 작성, 녹음, 촬영, 편집, 평가를 반복하며 좀 더 나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해요. 국원 중 하나라도 자신이 맡은 일에 소홀하면 방송이 어렵기에 방송국원에게는 책임감이 중요해요. 신문은 기획회의-취재-기사 작성-교열-지면편집-후편집-인쇄-배포의 과정을 거쳐 독자에게 전달됩니다. 기획회의에서는 어떤 기사를 쓸지 정하고, 기자별로 기사를 배정합니다. 기사를 배정받은 기자는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고, 교열을 위해 편집국장에게 기사를 제출합니다. 편집국장을 통과한 기사는 저한테 옵니다. 교열을 하며 기자에게 기사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취재를 하기도 하고 기사의 구성과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교열이 끝나면 수업이 끝난 저녁부터 모든 기자가 모여 야간에 지면 편집을 이틀간 진행하는데, 편집만 전문으로 하는 편집 기자가 기자들의 의견에 따라 '인디

자인'으로 편집을 합니다. 모든 지면 편집이 끝나면 신문 형태로 모든 면을 출력해 후편집을 합니다. 후편집은 주간 교수님을 비롯해 신문사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최종 확인 및 수정 단계입니다. 후편집이 마무리 되면 PDF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을 인쇄소로 보내 신문을 찍고, 완성된 신문을 받아 배포합니다.

올해 신문방송사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나요?

5년 전만 해도 학생기자과 국원의 평균 근무 기간이 2년은 됐는데, 요즘은 채 1년이 안 됩니다. 그만큼 신문방송사 일이 힘들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즘은 수시로 수습기자과 국원을 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습 채용과 교육이 일상이 되고, 일정 수준에 오른 정기자와 정국원이 부족한 상태인 게 현재 신문방송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학생기자과 국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어주고,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게 올해 신문방송사 운영의 중점입니다.

충북대 동문들에게 응원을 바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문방송사를 '언론'보다는 '홍보기관'으로 생각하는 분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학보(學報)'에서 '신문(新聞)'이 된 지 올해로 45년입니다. 우리는 학교 홍보지가 아니라 어엿한 언론사입니다. 물론 학교 관련 소식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학교 구성원의 생각을 대내외로 전해 소통을 돕고,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정보 보도로 학내 여론 형성을 도우며, 대학인의 사회 인식을 전해 시대를 선도하는 언론이 되고자 합니다.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학생의 시각이지만, 그래서 기성세대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기성세대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을 좀 더 순수하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우 편집위원>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2023 회원명부」가 발간 됩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충북대학교 동문 여러분! 총동문회는 2017년 회원명부를 발행한 이후, 6년만에 「2023년 회원명부」를 발간 예정입니다. 총동문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프로필 변동 사항 등을 정비하고, 총동문회 회원DB시스템을 업데이트 하고자 합니다. 「2023년 회원명부」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선도적인 활약을 하는 동문들의 소중한 자료로써, 동문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초가 되어 팬데믹 이후 위축되었던 동문회 활동이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 동문 개인의 정확한 프로필 작성을 위해 「회원명부 편집제작실」에서 전화/이메일/SMS 등으로 확인을 요청드릴 예정이니, 바쁘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3년 회원명부」 수익금은 우리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기금과 모교 후배들을 위한 동문회 발전기금·장학기금 등으로 소중히 쓰일 예정이오니, 동문 여러분께서 1부씩 소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명부 내에 포함될 동문기업 홍보에 많은 광고 협찬을 기다립니다. 명함 협찬에도 많은 격려와 성원 바랍니다.
- 동문 개개인의 프로필은 본인이 알려주시는 내용만 회원명부에 수록합니다.

광고 및 제작에 따른 문의처:

회원명부 편집실

Tel: 043-906-2642 Fax: 0303-3440-2500 E-mail: loveuv2@naver.com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수의과대학 대학원생 Preeti Kumari Chaudhar (초더하리)



각종 언론에 많은 수상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본인의 주된 연구방향은 무엇이며, 수상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울러 발전기금까지 기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발전기금을 기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연구실에서 연구하면서 많은 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의 연구는 주로 혈전증 및 지혈에 중요한 혈소판 신호 전달 경로를 특성화하고, 혈소판 활성화 조절과 관련된 분자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혈관 병리학 분야에서 약물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그저 집중하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제 연구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의 연구 역시 제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였습니다. 저의 연구는 교수님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가르침, 오류에 대한 지적, 그리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통해 더욱 가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기부를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저와 같은 다른 많은 학생들이 연구자가 되는 데 관심이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가 적은 금액을 기부하였지만, 저는 이러한 발전기금이 학생들이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적으로 강조하고 지원하여 젊은 연구자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제가 5년 넘게 대학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학문적 균형과 미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화합과 협력의 시너지효과 내기 위해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인 공존의 정신을 지도하시고 있다 생각합니다. 충북대학교의 한 가지 단점은, 한국의 다른 국립대학에 비해 한국에서 졸업한 외국인 졸업생을 채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충북대학교 외국인 졸업생들은 취업을 위해 새로운 기관을 찾아야만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향후 외국인 유학생들이 충북대학교 입학에 고려한다면 적극 추천하실지와 어떤 부분을 고려하여 준비를 해야 할지요?

저는 의심할 여지없이 유학생들에게 충북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충북대학교는 매우 좋은 학습 환경을 지원하면서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미래를 위해 도전하고 탐구하는 창의적인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충북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 연구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충북대학교 구성원으로 합류하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저는 유학생들에게 특히 그들이 언어 장벽에 직면할 경우 해외유학의 장점과 단점을 잘 따져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실과 지도교수님의 현재 연구 활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외국 생활을 즐기려면 학생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준비되고 자기 주도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충북대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더 높은 학위를 추구하는 것은 모든 연구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저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제가 성취한 직업과 학업적 성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제가 대학에서 배운 것들을 계속 적용할 것 입니다. 직업적으로 어디를 가든 저는 항상 충북대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경쟁력, 창의적 사고, 혁신 등을 키우는 환경에서 대학이 꽃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준영 편집위원>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병리 및 혈소판 신호 연구실에서 김수종 교수님 지도하에 박사 연구 조교로 일하고 있는, 네팔에서 온 Preeti Kumari Chaudhar(초더하리)입니다. 2017년 후기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입학하였으며, 석사 졸업 후 이어서 박사과정을 진행하여 2021년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입니다. 박사 수료 후 현재 기본적인 혈소판 신호, 혈소판 풍부 혈장 (PRP)의 치료 응용, 종양 병리학 및 혈소판 단백질학 (proteomics)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2023년 2월 16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연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하나만 꼽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문적인 일을 즐겼고,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제 자신이 발전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또한 저는 전문화하고, 새로운 전문성을 개발하고, 훌륭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 중 하나는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해당 학술대회에서 그간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국 학회의 경우 한국

충북대학교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부 과정을 마친 이후로 저는 더 높은 수준의 해외 유학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충북대학교의 경우, 저의 학부 모교의 교수님들 중 두 분께서 충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학과 평판, 대학 생활 등 모든 것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두 분의 교수님들과 몇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겪게 될 언어의 장벽을 알고 있었지만,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수의 병리학 연구실 김수종 교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항상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와 어울리고, 새로운 경험을 얻는 것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이유로 충북대학교에 지원하려는 동기가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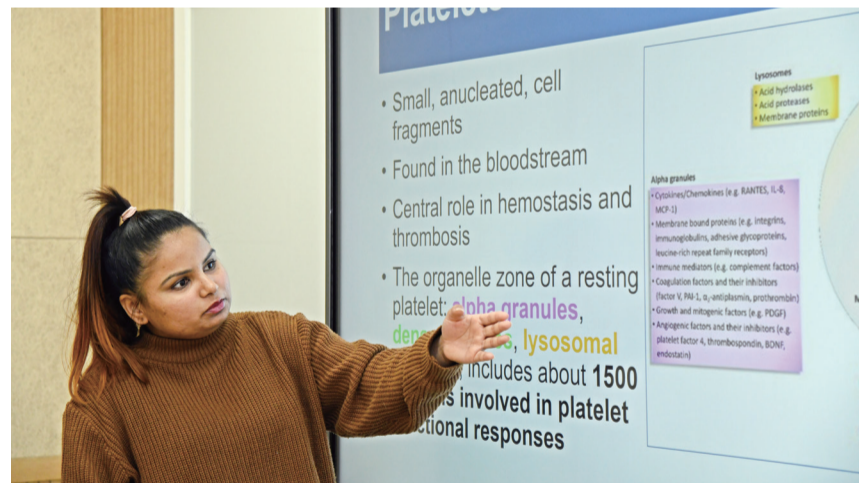
충북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것과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현재 연구 동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다른 연구자보다 뒤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의 장애물, 업무의 압박, 끝없는 노력과 헌신을 통한 지속적인 동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학회와 같이 여러 지역을 다닌 것들이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대학으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받을 것 이기에 이러한 기부는 오히려 저를 기쁘게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충북대학교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충북대학교는 전국에서 학생 만족도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의 명문 대학 중 하나입니다. 저는 충북대학교가 핵심적인 교육적 가치를 적극



GDR골프아카데미 청주동남점

청주 유일 프리미엄 시설과 골프가 쉬워지는 1:1 맞춤 레슨 시스템

내가 원하는 조건은 여기에 다있다!

대표 **김 두 환**
(체육 98)

- 01 넓고 쾌적한 호텔형 최신식 시설 (전타석 GDR Plus 타석)
- 02 100평 규모의 야외 퍼팅장 완비
- 03 KPGA · KLPGA PRO 1:1 맞춤 레슨 프로그램
- 04 편리한 무료 주차시설 완비



EVENT

충북대학교 동문 특별할인 (이용권 최대 ~50% 할인 적용)

8·9F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129
S1 타워 8, 9층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주말 10:00 - 22:00

상담문의

043-297-0007



안전함과 탄소중립 자원재순환까지!

딱딱함 NO! 유해성 NO!
이제 답은 코르크 바닥포장재!

- v 한여름에도 시원한 길
- v 유해성 ZERO 안전한 길
- v 재활용 가능한 자원재순환의 길



대전광역시 올미기공원



대전광역시 송촌 체육공원



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 놀이터



산책로,보경로,어린이 놀이터에 사용되는 코르크 바닥 포장재

(주) 더 케이엘 | 043-222-1010